		보 도 자 료	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	
		배포일시	2019. 11. 4.(월) 총 5매(본문3, 붙임 2)		
국토교통부	철도정책과	담 당 자	· 과장 김헌정, 사무관 허원석, 주무관 안정석 · ☎ (044)201-3938, 3949, 3945		
한국철도시설공단	기획조정실	담 당 자	· 부장 이승엽, 차장 조정호, 대리 양성순 · ☎ (042)607-3202, 3206, 3086		
한국철도공사	문화홍보처	담 당 자	· 부장 김옥순, 차장 민경애, 차장 홍종환 · ☎ (042)615-3146, 3258, (02)3149-3810		
한국철도협회	문화홍보처	담 당 자	· 국장 허정, 실장 이인경, 과장 유현주 · ☎ (02)964-3994, 3487-7920, 959-9973		
보 도 일 시		2019년 11월 0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4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미래로 나아가는 역사의 연결고리 『신한국철도사』 발간 - 125년 철도역사, 고속·도시·국제 등 발전적 관점에서 재정립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한국철도시설공단(이사장 김상균), 한국철도공사(사장 손병석)와 함께 한국철도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, 철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『신한국철도사』 (총7권)을 오는 11월 발간한다.
- 신한국철도사는 약 2년간의 기간 동안 학계와 산업계,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자문 및 집필에 참여하였으며,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학술적인 검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집필하였다.
- 이번 발간물은 1999년 철도청에서 발행한 「한국철도 100년사」 이후의 급변한 한국 철도 변화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, 나아가 미래철도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.

- 「신한국철도사」는 총 7권으로 총론 1권, 각론 3권(정책, 운영, 기술), 사진으로 보는 신한국철도사 1권, 그리고 알기쉬운 신한국철도사 국문판 및 영문판 각 1권으로 구성되었다.
- 총론의 경우는 1876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대를 시기별로 1부철도의 창설과 일본의 독점, 2부철도의 확장과 대륙 간선의 역할, 3부철도의 폐폐와 재건, 4부철도의 개량과 도시철도의 확충, 5부철도구조개혁과 고속철도의 정착, 총 5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.
- 이번 총론은 일제강점기 철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기술하고, 철도의 역사를 교통수단에 한정하여 서술하지 않고,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
- 각론은 정책, 운영, 기술 3분야로 나누어 총 10개의 부문을 수록하고 있다. 제1권 정책에서는 ①철도투자, ②고속철도, ③철도물류, ④철도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, 각론 제2권 운영에서는 ⑤철도경영의 발전 과제, ⑥간선여객 사업의 운영, ⑦도시·광역철도를 다루고 있다. 제3권 기술에서는 ⑧차량, ⑨전기, ⑩시설로 나누어 각각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.
- 아울러, 사진으로 보는 신한국철도사와 알기쉬운 신한국철도사(국·영문판)는 철도 역사를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서술하지 않고, 일반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흥미있게 재구성하였다.
- 신한국철도사는 우리나라 국공립도서관과 철도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철도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 철도역사(歷史)를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곳에 널리 배포할 예정이며, 전자북(e-book)으로도 제작하여 한국철도협회 누리집*에서 누구든지 손쉽게 볼 수 있다.

* 한국철도협회 누리집 : <http://www.korass.or.kr> → 정보마당 → 新한국철도사

- 특히, 「알기쉬운 신한국철도사(영문판)」은 우리 철도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매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, 「사진으로 보는 신한국철도사」는 역사적 순서대로 사진을 배치하여 총론을 사진만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*이다.

* 올해 철도의 날(6. 28일) 기념행사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.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“‘신(新) 한국철도사’가 우리 철도의 과거와 현재, 그리고 미래를 새롭게 조망한 역사서인 동시에 철도 정책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.” 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허원석사무관(☎044-201-39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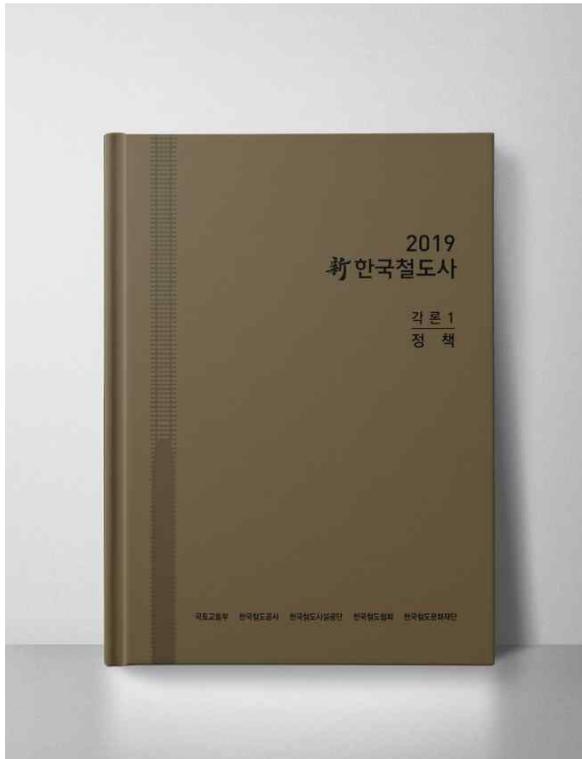
(합본)



(총론)



(각론 제1권 - 정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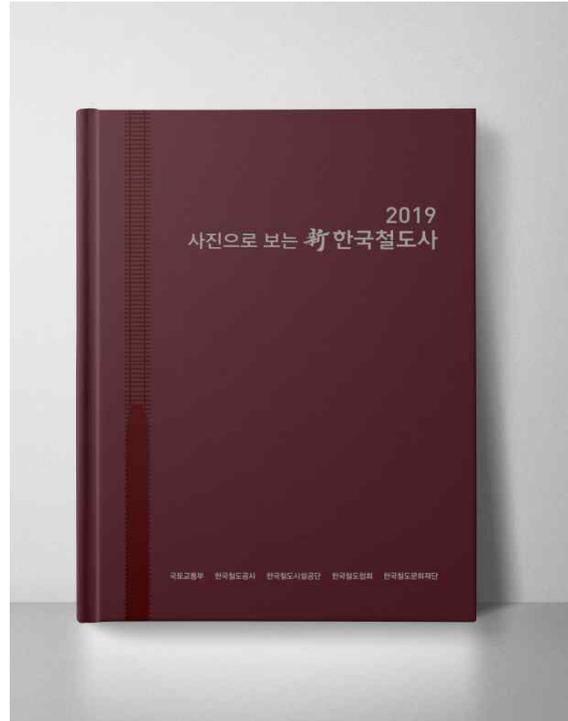
(각론 제2권 - 운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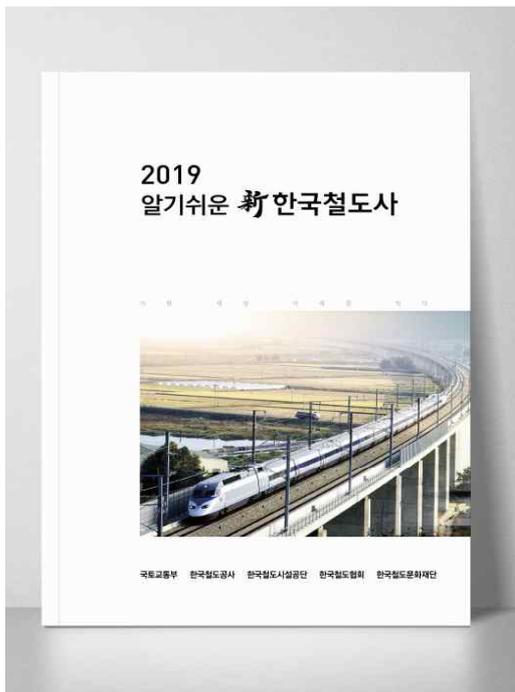
(각론 제3권 - 기술)



(사진으로보는 신한국철도사)



(알기쉬운 신한국철도사 국문판)



(알기쉬운 신한국철도사 영문판)

